

# 게릴라식 협상전술...치고 빠지기 능한 북한

## 김정은 시대

###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전략

이성춘 지음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가 확정됐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무엇보다 북한은 4일 열기로

했던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북측은 “남측 언론들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는 가운데,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론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리의 언론을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으로 공연장인 금강산문화회관 시설 노후화를 비롯한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한 여의치 않은 전력 공급 사정 등도 행사 취소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북한은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때 “판문점을 통해 예술단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8일 만에 경의선 육로로 경로를 변경하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북한의 ‘일방통행’ 식 행태는 어제 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군사 협상행태는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재현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1월 리모델링한 평양무궤도전차(트롤리버스)공장을 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늘의 일이 아니다. 갈수록 노골화, 반복화 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대북 협상 전략을 어렵게 한다.

사실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수다. 언뜻 보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언제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다. 남한은 6.25 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 여기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중적 관계에 놓여 있다.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협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때에 북한의 군사협상에 관한 문제를 다룬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송원대 국방경찰학과 이성춘 교수가 펴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전략’은 북한의 전략문화와 연계해 향후 군사협상 전략을 전망한다.

육군본부 정책홍보실과 국방부 정책실에서 근무했던 경험, 동국대 대학원에서 군사협상 분야 최초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답게 새로운 시각과 방법이 제시돼 있다.

저자는 북한의 군사협상 핵심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이다. 즉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문화는 항일유격대 시절의 담판 틀 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이 ‘오의성과의 담판’ 시 사전에 유격대 내부적으로 격한 토론을 통하여 제일 먼저 담판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 다음 협상문화 배경으로 하여 협상전략과 전술을 결정하였다. 즉 이것은 ‘협상관’을 결정한 다음 협상문화에 근거하여 협상전략과 협상전술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북한의 군사 협상전술은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협상전술과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본다. 특히 “군사협상의 준비단계, 초기단계, 중간단계, 최종 및 이행단계 등에서 협상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는 협상전술이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인 ‘오의성과의 담판’, ‘고이허와의 담판’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들이 예측불허의 전술을 구사해, 협상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협상행태를 예측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선인·3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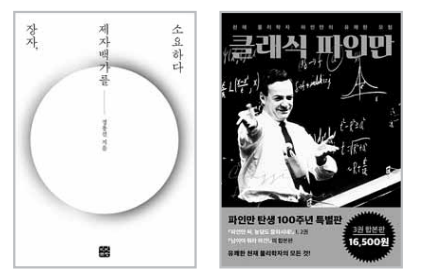
▲장자, 제자백가를 소요하다=춘추전국시대에 만개한 제자백가의 핵심적 사상들과 더불어 장자(莊子)에 대한 이해를 강의적으로 풀어낸 정용선 작가의 신작이다. 고대 중국사상과 장자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일깨움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읽기보다는 저자의 목소리를 따라 가장 근원적인 인간 고민과 사유의 흔적을 따라서 가보는 과정에 책의 핵심이 있다. 인간과 세계의 근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꽃피워낸 사상가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함께 장자를 알아가려는 여정을 담았다.

〈빈번책방·1만8000원〉

▲클래식 파인만=리처드 파인만은 당대 과학의 아이콘이자 가장 창조적인 물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20세기 과학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클래식 파인만’은 리처드 파인만의 자서전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1’,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2’와 ‘남아 뭐라 하건 세 권의 합본판이다. 이 책은 20세기 과학의 바톤을 받아 나아가야 하는 지금 파인만의 삶과 과학 이야기를 한데 묶은 책으로 21세기 과학을 새로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클래식이 될 것이다.

〈사이언스북스·1만6500원〉

▲프리머너 다이슨의 의도된 실수=프리머너 다이슨은 현대 과학이 비인간적인 이유로 우리가 인간과 철학에 아무것도 묻지 않기 때문이고 조립이다. 총 21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인류에게 지



혜를 제공한 원천들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역사 속에서 인문학과 과학이 하나였던 때와 함께 발전했던 때를 보여준다.

〈메디치미디어·1만8000원〉

▲황야의 현책방=일본 도쿄 긴자에는 ‘한 권의 책을 파는 서점(一冊,一室)’ 모리오가 서점이 있다. 현재의 모리오가 서점 긴자점을 열기 전, 모리오가 요시유키는 진보초고서점에서 8년간의 수업시대를 거쳤다. 독립해 사진 전문 현책방을 냈으나 한동안 황야에 선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왔다. 이후 갤러리, 스튜디오, 서점 큐레이션 등 다양한 시도와 협업을 통해 행보를 넓혔으며, 현재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황야의 현책방’에는 이러한 과정이 기록돼 있다.

〈한뼘책방·1만4000원〉

# 편견에 맞선 신여성, 조선 밖으로 나가다

##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

### -나혜석

나혜석 지음

그녀에게는 늘 불안을 주는 네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둘째, 남녀 사이는 어떻게 살아야 평화스럽게 살까. 셋째,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넷째, 그림의 요점은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실로 알기 어려운 문제이고, 더욱이 나의 견식, 나의 경험으로는 알 길이 없어” 그녀는 떠나기로 한다. 뒷막이 어린애를 포함해 세 아이가 있고, 70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심기일전의 파동을 감할 수 없어” 감행한



일이었다.

그녀는 1927년 6월 22일 경성역에서 출발한다. 그녀가 향한 곳은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으로 무려 1년반에 이르는 긴 여정이었다. 지금부터 90여년전 그녀는 세계일주를 감행한다. 그녀는 화가 나혜석이다.

나혜석(1896~1948)은 여러가지 ‘최초’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고, 최초의 여성 동경 유학생이었다. 여기에 하나 더. 그녀는 최초로 세계일주 여행에 나선 여성이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나혜석의 세계일주 기행문을 모은 책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나혜석’이 나왔다. 그녀의 기행기는 단편적으로 소개된 적은 있다. 이번 책은 그녀가 남긴 23편의 기행문(신문기사 2편 포함)을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 흑백 그림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나혜석이 유럽 현지에서 느낀 감흥들을 담아 작업한 그림들을 함께 실어 여행의 느낌을 복원해냈다.

한달여간 시베리아를 횡단한 후 파리에 1년간 머물며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각지를 여행한 나혜석은 미 대륙을 둘러보고 태평양을 건너 돌아온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화단을 동경하고 구미(歐美) 여자의 활동을 보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들은 예

술기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벨기에 왕립미술관에서 만난 반 다이크의 작품들, 밀리는 군중 사이에 끼여 찾은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경험, 고갱·고흐의 그림을 만난 뤼상부르 미술관의 기억 등 그녀의 글을 따라 가면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했던 ‘절저한 예술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또 늘 시대와 불화였던 한 여성의 고민과 그 고민을 깨트리고 성장해 가는 과정 등도 만날 수 있다.

3·1운동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고 변호사였던 남편 김우영과의 이혼 과정에서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남성시각주의를 고발하는 ‘이혼 고백서’를 발표한 그녀는, 파리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최린과의 연애사건 등으로 늘 화제의 중심에 섰고 1948년 무연고 행방불명자로 삶을 마감한다.

〈가가날·1만2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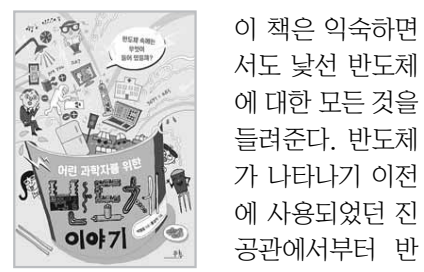
## 어린이·청소년 책

▲구름송이 토끼야, 놀자!=구름송이 토끼 또또송이와 살랑이의 흥미진진한 일상을 그린 작품이다. 두 주인공이 꼬마 먹구름, 무지개 농부 도도새, 산에 사는 메아리 등을 만나며 벌이는 이야기가 친근하고 정겹다. 신에 백은석, 유혜린 작가는 전진하고 호기심 많은 구름송이 토끼 이야기를 솜씨 좋게 풀어냈다. 동물의 특성을 잘 살린 귀여운 캐릭터와 탁월한 장면 구성은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창비·9000원〉

▲꼬마곰에게 뽀뽀를=이 책은 이제 막 혼자서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꼬마 곰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할머니께 전해 달라고 암탉에게 부탁하고, 그림을 받은 할머니는 꼬마 곰에게 할 뽀뽀를 암탉에게 전한다. 그 뽀뽀는 암탉, 개구리, 고양이, 꼬마스핑크, 꼬마암스핑크를 거쳐 드디어 꼬마 곰에게 전해진다는 유머와 사랑이 넘치는 그림동화다.

〈시공주니어·1만5000원〉  
▲어린 과학자를 위한 반도체 이야기=



이 책은 익숙하면 서도 낯선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들려준다. 반도체가 나타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진공관에서부터 반도체의 원료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 또 다양한 반도체의 종류와 쓰임새까지 담았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반도체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 교통 카드 그리고 전장에 달린 조명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추천한다.

〈창비·9800원〉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소의' 주름 펴는 찾아가는 문화

동네 미술관, 마을 작은 도서관이 카운터 중생 화가, 할머니 시인  
고흥, 진도 등에 작은 영화관 개관  
오지, 섬마을로 찾아가는 예술단

정월대보름 좋은 글귀로 가운 쓰는 품습

우리도 가운 만들까?

기행-세시풍속 이야기  
정월대보름 좋은 글귀로 가운 쓰는 품습

고흥, 진도 등에 작은 영화관 개관

오지, 섬마을로 찾아가는 예술단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열악한 제작 환경, 드라마 강국의 불편한 민낯

해당수산부 공동 기획 겨울바다 여행

삼천지 김남달  
-안산 대부도  
-고깃부리 마을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열악한 제작 환경, 드라마 강국의 불편한 민낯

해당수산부 공동 기획 겨울바다 여행

삼천지 김남달  
-안산 대부도  
-고깃부리 마을

**이농야**  
2018년 2월호

특집: '문화소의' 주름 펴는 찾아가는 문화

동네 미술관, 마을 작은 도서관이 카운터 중생 화가, 할머니 시인  
고흥, 진도 등에 작은 영화관 개관  
오지, 섬마을로 찾아가는 예술단

정월대보름 좋은 글귀로 가운 쓰는 품습

우리도 가운 만들까?

기행-세시풍속 이야기  
정월대보름 좋은 글귀로 가운 쓰는 품습

고흥, 진도 등에 작은 영화관 개관

오지, 섬마을로 찾아가는 예술단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열악한 제작 환경, 드라마 강국의 불편한 민낯

해당수산부 공동 기획 겨울바다 여행

삼천지 김남달  
-안산 대부도  
-고깃부리 마을

**이농야**  
2018년 2월호

특집: '문화소의' 주름 펴는 찾아가는 문화

동네 미술관, 마을 작은 도서관이 카운터 중생 화가, 할머니 시인  
고흥, 진도 등에 작은 영화관 개관  
오지, 섬마을로 찾아가는 예술단

정월대보름 좋은 글귀로 가운 쓰는 품습

우리도 가운 만들까?

기행-세시풍속 이야기  
정월대보름 좋은 글귀로 가운 쓰는 품습

고흥, 진도 등에 작은 영화관 개관

오지, 섬마을로 찾아가는 예술단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열악한 제작 환경, 드라마 강국의 불편한 민낯

해당수산부 공동 기획 겨울바다 여행

삼천지 김남달  
-안산 대부도  
-고깃부리 마을